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중수에 관한 재검토

이 희 정*

| 목 차 |

- I. 서론
- II. 비로자나삼존상의 특징
- III. 중수문과 과학으로 본 중수내용
- IV. 결론

| 국문초록 |

일반적으로 ‘조각가의 역량’이라는 것은 자신이 완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완숙된 기술로 자신의 개성을 조화롭게 잘 표현해 내는가를 말한다. 조선시대에 활동한 많은 조각승 중에서도 부산 범어사 관음전 불상의 신조성과 비로전 불상을 중수한 진열이 그런 인물 중의 하나이다. 일반조각과 달리 종교조각에서는 얼마나 성상(聖像)답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범어사 비로전 삼존상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범어사 비로전에는 본존상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좌측에 문수보살(文殊菩薩)과 우측에 보현보살(普賢菩薩)이 봉안되어 있다. 석가여래를 대신하여 비로자나불로 대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도상 구성은 처음 알려지게 된

* 문화재청 감정위원 / hjsmart68@naver.com

것이며, 이는 임진왜란 이후 비로자나불, 석가여래, 노사나불을 하나로 보는 불교계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비로전 불상은 범어사 호국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상 때부터 화엄경(華嚴經)의 염송과 법력으로 일본을 물리치고자 한 오랜 화엄사찰의 호국신앙에 명맥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졌으며, 비로전 불상과 같이 다양한 조성활동을 통해 이를 표출하고자 했다.

비로전 불상은 1638년 조성되어 1722년 중수되었는데 이 지휘를 진열이 맡았다. 그는 1722년 비로전 삼존상의 중수를 비롯하여 관음전 불상을 새로 조성하고 미륵전 불상을 개금하는 등 범어사 중창에 기여한 바 크다. 중수의 방법은 조선후기의 다른 조각승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중수의 결과, 비로전 불상은 진열 자신의 불상 양식 뿐 아니라 17세기 조성 조각승의 불상 양식이 잘 어우러져 성상(聖像)으로써 높고 단아하며, 엄숙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이것이 곧 조각승 진열의 조각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범어사 비로전, 비로자나불, 중수, 호국신앙, 진열

I. 서론

일반적으로 ‘조각가의 역량’이라 함은 자신이 완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얼마나 완숙된 기술로 자신의 개성을 조화롭게 잘 표현해 내는가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역량이 돋보이는 인물이 있다. 범어사 관음전과 비로전 불상을 제작, 수리한 ‘진열(進悅)’로 그가 다루었던 불상에서는 그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각과 불상을 다루는 숙련된 기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012년 3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도금 탈락과 균열 등에 대한 보수 정비가 진행되었다. 정확한 수리를 위해 엑스레이와 열화상촬영, 수종(樹種)·토양·안료의 분석 등

다각도의 정밀조사가 실시되어, 육안으로 본 것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분석해 볼 기회가 생겼다.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에 대한 관심은 2006년 문화재 지정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1722년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과 같은 시점에 수리된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과는 전혀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은 매우 닮아 있음에 의문이 생겼고, 이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특징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여 논고를 발표한 바도 있다.¹⁾

이번 과학적 조사의 성과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제작기법, 중수의 구체적 방법을 확인한 것이며, 도상 등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상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특징

1. 조각적 특징

범어사 비로전에 봉안된 3구의 불상은 적당한 너비의 어깨, 긴 상반신과 다리가 이루는 신체비례가 좋은 편이며, 무릎은 높지 않다<도 1>. 즉 꼭지점이 높은 이등변삼각형 구도의 안정된 신체비례는 진주 청곡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1615)이나 경산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1636), 진주 응석사 목조삼존불좌상(1643) 등 대체로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이다<도 2>.

1) 이희정,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의 重修에 관하여』, 『港都釜山』 제26호, 335~363쪽.



<도 1>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높이 124.6cm, 조선1638년, 부산 범어사 비로전



<도 2> 목조약사여래좌상, 조선1643년, 청헌작, 진주 응석사

본존상의 수인은 지권인이며, 양측 보살상은 두 손의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댄 채 오른쪽쪽의 보살상은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들고 왼손은 다리 위에 살짝 들고 있으며, 맞은편 보살상은 손 위치가 반대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본존상의 지권인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모습으로 이전 시대의 불상 수인 형태에 가깝다.

조선후기 불상의 지권인은 두 가지 형태이다. 김제 귀신사 비로자나 불상과 같이 양손의 검지를 세워 한쪽 검지 손끝을 구부린 채 합장한 모습<표 1_①>과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쥔 형태인데 이것이 일반적이다<표 1_②>. 그러나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손모양은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유사하며, 오른손을 비스듬히 틀어 손바닥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게 한 것은 다른 점이다<표 1_③>.

<표 1> 불상의 수인(지권인)

		
① 소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선1633년, 무염작, 김제 귀신사	②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선1622년, 현진작, 서울 지장암	③ 금동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8세기후반, 경주 불국사

또한 조선후기 비로자나불좌상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양 팔의 팔꿈치가 같은 위치선 상에 있는데 범어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범어사 비로자나불좌상의 수인은 이전 시대의 표현 기법을 반영하면서도 조선후기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얼굴은 방형으로 턱과 양 볼이 둥글고 부푼 듯 탄력 있으며, 나지막한 이마로부터 코로 이어지는 오뚝한 코, 가늘고 수평으로 깎은 눈 등 이목구비의 비례와 균형감이 좋으며, 여기에 미소까지 더해져 전체적으로 인상이 매우 부드럽고 인자해 보인다. 이 같은 얼굴 특징은 진열이 비로전 불상 중수와 같은 시기에 조성한 1722년 범어사 관음전 목조 관음보살상이나 다른 진열의 불상과도 유사하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신체비례는 다르지만 얼굴은 진열의 다른 불상특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도 3, 4>.

착의법은 오른쪽에 편삼을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대의로 돌려 입은 변형된 통견식이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는 팔꿈치까지 곡선을 그리며 흘러내리고, 가장 안쪽에 한 개의 옷주름은 끝이 사선으로 잘린 모양으로 띠처럼 길게 내려와 있다<도 5, 6>. 이는 진열의 불상에서 가장 안쪽 옷주름 하나가 물방울형으로 큼직하게 강조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도 4>.



<도 3> 목조관음보살좌상,
높이 97.5cm, 조선1722년, 진열작,
범어사 관음전



<도 4> 목조관음보살좌상,
높이 72.4cm, 조선1706년, 진열작,
극성 서산사



<도 5> 목조보현보살좌상, 우협시,
높이 102.2cm, 조선1638년,
부산 범어사 비로전



<도 6> 목조문수보살좌상, 좌협시,
높이 108.1cm, 조선1638년,
부산 범어사 비로전



① 목조비로자나불
좌상, 조선1638년,
범어사 비로전

② 목조문수보살
좌상, 조선1615년,
진주 청곡사

③ 목조문수보살
좌상, 조선1638년,
범어사 비로전

④ 목조관음보살 좌
상, 조선1722년, 진
열작, 부산 적조암

<도 7> 비로전 삼존상의 특징(좌측 상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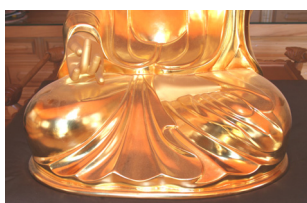
그리고 왼쪽 어깨의 대의 끝단도 본존상은 왼쪽 대의자락 끝단이 수평으로 이어지며 희미하게 2개의 요형으로 끝이 동그랗게 올라가 17세기 전반 불상의 특징을 보이며<도 7_①, ②>, 보살상은 진열의 불상과 비슷한 人字형을 이루지만 하박(下膊) 즉 팔꿈치로부터 손목아래까지 전체적으로 드러난 있는 점은 진열 불상의 특징과는 다른 점이다<도 7_③, ④>.

17세기 전반 불상은 배 앞의 옷자락 표현에서도 18세기 초를 전후하여 조성된 불상과는 다르다. 1640년 거창 심우사 불상, 1643년 진주 응석사 불상 등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상을 보면 편삼과 대의가 서로 교차하여 배 앞 전면에 큼직한 옷자락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표현되는데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에서도 같은 특징이 보인다<도 1, 4>. 이로 보면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신체비례, 오른쪽 어깨와 왼팔의 측면, 배 앞 옷주름 등 상반신은 17세기 전반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반신의 표현은 상반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발목으로부터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가운데의 옷주름은 끝단이 S자형을 이루



①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선 1638년, 범어사 비로전



② 목조보살좌상, 조선 18세
기전반, 진열좌, 함양 안국사

<도 8> 비로전 목조비로자
삼존불좌상과 진열 불상의
하반신 옷주름 특징

며, 이것과 이어지는 둥근 물결모양의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의 처리는 진열 불상의 하반신 표현과 매우 닮아 있다 <도 8>.²⁾ 하반신은 상반신의 두껍고 투박해 보이는 옷주름 표현과 다르며, 하반신은 마치 옷주름을 새로 조각하여 붙인 것 같아 보인다.

끝으로 삼존상이 앉은 대좌이다. 대좌는 난간을 갖춘 팔각대좌 위에 내림연꽃이 조각된 연화좌로 구성되어 있다. 연화좌 윗면에는 “崇禎十二年戊寅”의 묵서 발견으로 1638년에 삼존상과 같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도 9>, 앞이 넓고 뒤가 좁아지며 그 위에 내림연꽃을 조각하거나 꽃모양을 그려 넣은 방식은 조선 후기 연화좌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연화좌 아래 팔각대좌는 진열이 중수하던 때 제작한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측면에 “康熙六十…改佛”이라 적은 솜씨가 상면에 놓인 연화좌와 다르다<도 10>. 팔각대좌는 진열의 숙련된 기술과 조형 감각이 돋보인다. 조선후기는 각 면이 직선을 이루어 맞물리는 대좌형식이 보편적인데 진열은 모서리마다 각 머리를 둥글려 곡선을 강조하였으며, 중단의 상하에 놓인 중첩된 받침도 곡선으로 하나하나 조각하여 짜 맞췄었다. 또한 넓은 면에는 울룩불룩한 큼직한 모란을 투각하여 장식성을 더했으며, 8개의 모서리로부터 올라오는 귀꽃을 서로 연결하여 난

2) 이희정, 『咸陽 安國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東亞文化』 2·3호, 2007, 707쪽 도 2~도 5, 709쪽 도 6~도 9참조.



<도 9> 연화좌 뒷면 목서 명문, 조선
1638년, 범어사 비로전



<도 10> 팔각대좌의 명문, 조선
1722년, 범어사 비로전

간을 만들어 세련되며 조형성이 뛰어난 팔각대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진열이 수리한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삼존상은 17세기와 18세기 불상의 특징이 적절히 조화롭게 표현되었으며, 이런 점이 곧 진열이 불상을 다루는 조각적 역량이라 볼 수 있겠다.

2. 도상적 특징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운데의 비로자나불좌상을 주존으로 하고 좌우는 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11>. 이런 도상 구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었으며, 양측 보살상의 존명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



<도 11>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조선 1638년, 1722년 중수, 범어사 비로전

자나삼존불좌상의 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에 유행한 삼존상의 전체적 도상 구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조선후기 삼존상은 가운데 주존불로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아미타여래를 두며, 양측에 불·보살로 삼존형식을 이룬다.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도상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먼저 조선후기 석가여래를 주존불로 하는 삼존상의 도상 구성은 좌측에 문수보살, 우측에 보현보살을 두거나 양측에 2구의 여래를 두는 형식이 있다. 전자의 존명이 알려졌진 예로는 1615년 진주 청곡사 목조 석가여래삼존불좌상, 1657년 도우가 조성한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이 있으며 이 삼존상은 주로 대웅전에 봉안된다. 대부분 존명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삼존불 도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표 2_①>. 한편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과 같이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보살의 협시를 두는 형식은 같으나 전혀 다른 성격의 도상구성도 있다. 『법화경(法華經)』의 수기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삼존상인데 본존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석가여래가 수기를 준 제

화갈라보살을 두고, 좌측에는 수기를 받은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협시로 한 구성이다. 이 같은 도상구성의 삼존상은 17세기 후반에 유행했으며, 대부분 웅진전,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 특히 권속으로 16나한상이 따르는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도상구성으로 알려져 있다.³⁾ 17세기 전반 수기삼존불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과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두 예가 있으며,⁴⁾ 이 두 사찰의 불상은 웅진전에 봉안되지 않고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점이 다르다<표 2_③>.⁵⁾

전자의 보살상 대신 협시를 여래로 두는 후자의 경우는 삼세불 도상으로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도상이다. 임진왜란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불교계는 선교양종에서 벗어나 하나로 통합된 통불교(通佛敎)를 지향하고 있었으며,⁶⁾ 이런 영향 아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우측에 아미타여래, 좌측에 약사여래를 한 전각에 봉안하는 방식이 유행한 듯하다. 일반적으로 삼세불로 불리지만 최근 서방 아미타와 동방유리광의 약사여래가 각각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여 ‘삼방불’로 부르기도 하며, 혹은 삼불의 구성으로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부르기도 한다<표 2_②>.⁷⁾ 한편 본존에 비로자나불을 두고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

3) 송은석, 『17世紀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9쪽, 42~44쪽.

4) 정은우,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 『역사와 담론』 제65호, 2013, 483~517쪽.

5) 여수 흥국사 대웅전 2구의 보살상은 보관 뒤에 “提花菩薩大明崇禎”, “慈氏菩薩大明崇禎”으로 양각되어 있으며, 범어사 대웅전 불상은 조성문에 “...財□役於辛丑之春斷手於辛丑之夏名田釋迦 尊相噫吁□金身顯煥鬼海上之孤峰妙相莊嚴皎皎星中之圓月偉哉提花揭羅慈氏弥勒...”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정밀진단』, 문화재청·여수시, 2013, 286~303쪽.

6) 김봉렬, 『朝鮮時代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71~73쪽.

7) 송은석, 앞의 논문, 22~23쪽;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32~38쪽.

<표 2> 조선 후기 삼존상의 도상

	
①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1615, 아미타여래-석가여래-약사여래)	④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26, 석가여래-비로자나불-노사나불)
	
②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1643, 아미타여래-석가여래-약사여래)	⑤고창 선운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1633, 아미타여래-비로자나불-약사여래)
	
③부산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1661, 제화갈라보살-석가여래-미륵보살)	⑥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1636, 석가여래-비로자나불-노사나불)

를 두는 경우도 삼세불로 지칭하는데<표 2_⑤> 이는 당시 불교계의 인식과 관련된다. 17세기의 승려 중관 해안은 범주사 대웅대광명전에 봉안된 삼신불에 대해 “속리산대범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에서 비로자나불, 석가여래, 노사나불을 셋이 아닌 하나로 보았으며<표 2_④>,8) 이런 인식에서 석가여래를 대신

8) 中觀海眼,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 “山之寺之殿之相之 有三身也……

하여 비로자나불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삼신불은 거의 같은 여래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1636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과 같이 화신인 노사나불을 보살형으로 두어 조각승마다 표현법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표 2_⑥>.⁹⁾ 대체로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는 도상구성은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사례가 많아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조성시기를 짐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어사 비로전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보살을 협시로 둔 도상은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 보살의 존명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범어사지(梵魚寺誌)』 「고적(古蹟)」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로전과 봉안불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미륵전 서쪽에 삼칸의 비로전이 있는데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향화동자상을 봉안하였는데 모두 병기를 든 형상이다...”¹⁰⁾라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비로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삼존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이 가능한 데에는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相記)”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로자나불, 석가여래, 노사나불의 삼불(三佛)을 하나로 보는 불교계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며, 이로써 석가여래 대신 비로자나불로 대체가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범어사의 사찰 성격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없다. 새로운 요소의 지권인을 취한 범어사 비로전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좌상의 모습은 이를 조성하고자 한 이들의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출하는 선택의 바탕에는 범

則三 三則一...”

9) 『華嚴寺事蹟記』, 124~126쪽.

10) 『梵魚寺誌』 「古蹟」 “...彌勒殿西立毘盧殿三間又像毘盧遮那文殊普賢香火童子各持兵器之像...”

어사가 오랜 시간 화엄사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범어사지(梵魚寺誌)』 「고적」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왕이 의상대사를 모시고 함께 그 산에 가서 금정암 밑에서 칠일 낮 칠일 밤 화엄경을 독송하고 신중정근을 하면 미륵여래가 금색신을 나타나고, 사천왕이 각각 병기를 들고 나타나며, 비로자나불이 금색신을 나타내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향화동자, 40법체 신중과 제신 천왕을 거느리어 각각 병기를 가지고 일본을 제압할 터이니 왜병은 자연 물러날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 이 내용을 보면 범어사는 삼국시대부터 화엄신앙과 호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¹²⁾ 조선시대에는 화엄교주 비로자나불상을 조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범어사에는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화엄신앙과 국가비보사찰의 성격을 반영한 유물이 비로전 삼존상외에도 장대한 미륵좌상, 4폭의 사천왕 불화가 남아 있다.

Ⅲ. 중수문과 과학으로 본 중수내용

1. 중수문

범어사 비로전 삼존상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2006년 조사에서 중수문이 확인되어 조성시기, 중수과정과 중수시기 등에 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다.

11) 『梵魚寺誌』, 『梵魚寺創建事蹟』, 8~10쪽. 부산광역시·금정구청, 『범어사대웅전』 수리공사 보고서, 2004, 63~64쪽. 박은경·정은우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선인, 2011, 14~19쪽.

12) 『三國遺事』卷4, 義湘傳敎 “...湘이 十寺에 명을 내리어 敎를 傳하니 太伯山, 浮石寺, 原州의 毗摩羅寺, 伽倻의 海印寺, 毗瑟의 玉泉寺, 金井의 梵魚, 南嶽의 華嚴寺 등이 그것이다...”

『東萊金井山梵魚寺毘盧佛三尊重修塗金記』

原夫佛相之作始於于闐國王梅檀之造而作後世常住之福田故印土支那或之鑄以金雕之以木塑之以泥畫之以帛以爲群生瞻仰歸投之地正如因指會月卽樹占風不是眩神通於幻境實乃開方便於迷津則可謂因筌得魚卽事現理者也凡爲釋子者雖一錫杖之所莫不模相以安而崇奉之況於近千楹叢林者耶

A. 梵魚寺左法堂所安毘盧佛三尊則崇禎十一年戊寅春禪德海敏發敬募募檀緣所成也則奚啻費十家之產耶勸力勞心力概可知矣

B. 季深歲久金飛佛面彩脫眉間居過興嗟者有季適得古香徒僉員留脩之物財而事大物尠恒有未就之慮衆僉相議共謀重修無人主宰於是嘉善興寶樞一山之規繩以其有權德寬重立爲募緣之主通政彥聰敏老之雲仍惜其先師之功又有知因識果之能立爲別座山人思屹曾成通寺之天王與匠有舊爲召匠之請主而無爲幹善通政祖眼曉通事理方正有道爲監役之宰嘉善進悅應身湖南工於造佛之特立請爲重修之匠始役於康熙六十一年壬寅春三月告功於同季夏六月

C. 其間亦不無削舊添新換拙成巧之功則所謂錦上添華而益勸專精者也巍然聖相左端右嚴燦爾神功光前續後是豈非功不浪施福不唐捐也且夫彌勒佛一尊改金亦在同時而故嘉善釋明學爲施金之檀越云壬寅六月初三日扃谷門人月嚴處機記

D. 香海善印書 安養阿彌陀佛一尊 寂照庵觀音一尊 幹善思屹願佛彌陀會三尊之一時造成而各有主改茲不贅焉 毘盧佛 佛靈桶大施主比丘雲湜」

원문 A.의 내용은 범어사 좌법당의 비로자나삼존불상은 선덕(禪德) 해민(海敏)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발해 사람에게 인권하여 재물을 시주를 받아 승정 11년 무인년(1638)봄에 불상을 조성해 봉안했다는 내용이다. 해민은 17세기 전반 범어사 중창에 큰 힘을 발휘한 중요 인물로 1661년 범어사 대웅전 삼존상 조성과¹³⁾ 그밖에도 비로전의 3칸 건

물도 해민이 재물을 내어 중건했다.¹⁴⁾ 1638년 비로전 삼존상, 1661년 범어사 대웅전 삼존상까지 해민이 이렇게 불상 조성에 힘을 쓴 까닭은 불상을 조성해 전각에 봉안하는 공덕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겼던 그의 불교관에 바탕한 것이라 생각된다.¹⁵⁾

비로전 삼존상이 조성된 1638년에는 그 밖에도 비로전 바로 옆 전각 미륵전 불상을 인휼(印沭)이 전각에 모셨고, 1641년에 선각(善覺)이 개금했다는 기록도 있어,¹⁶⁾ 이때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양란이후 본격적으로 범어사가 정비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원문 B는 중수 이전 상의 모습과 불사와 관련된 인물이 주 내용이다. 조성 이후 “해는 깊어지고, 세월은 오래되어 금은의 부처 얼굴은 금이 날아가고 색이 탈락되어 보기 좋지 않아 가엾게 여겼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얼굴에 보이는 채색의 탈락과 관련된 내용만 전할 뿐 다른 부분의 훼손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얼굴 외 몸 전체에 소조층이 확인되어 생각보다 수리 범위가 컸던 것으로 짐작되며,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는 조사의 한계가 따랐다.

비로전 삼존상은 수리를 위해 시주를 모은 후에도 한 동안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비로소 덕관이 중수의 뜻을 세우고 통정 언충과 홍보의 주관으로 비로전 삼존상의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홍보는 이를 위해 직접 시주에 참여하기도 했다.¹⁷⁾ 불상 중수에 직접 관여한 진열이 범어

13) 송은석, 앞의 논문, 2007, 505쪽.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彫刻僧과 佛像」,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33쪽.

14) 『梵魚寺誌』, 『彌勒雕像重修記』: “...海敏募緣成毘盧佛三尊而法堂之主佛三尊及毘盧殿三間皆以自財成...”

15) 『梵魚寺誌』,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蓋石桶記』: “...老德海敏公與弟子嘉善大夫贊心謀曰經云人生丈夫出家佛法實皆難得今四難皆已得之何幸如之然所謂成就佛道嗚呼矣與爾俱違則造佛造寺有何不可人生百世來日無多如羊入屠步步趨死良可悲也即日盡傾所儲造大雄殿所安佛像金佛三尊又彫毘盧殿而同道毘盧金佛三尊其功其德非世所謂隨例之善也(下略)...”

16) 『梵魚寺誌』, 『彌勒雕像重修記』: “...戊寅印沆蔭閣辛巳善覺改金云...”

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원래 통도사 승려였던 사흘의 역할이 컸다. 진열과 사흘은 1718년 통도사 사천왕상을 조성할 때 그를 알게 되었으며, 사흘은 인근 범어사 중창에도 별좌로 참여하여 범어사로 진열을 초청했으며, 위와 비슷한 내용이 『梵魚寺誌』¹⁷⁾와 범어사 관음전 보살상의 대좌 상면 묵서¹⁸⁾에 기록되어 있다.

원문 C.는 좀 더 구체적인 중수 내용과 중수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은 보충했으며, 웅졸한 것은 바꾸어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수리전의 모습, 구체적인 수리 과정을 짐작 할 수 없으나 비로전 삼존상은 원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상이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상과 닮아 있는 것이 그 결과이다. 당시 사람들은 진열의 불상 수리에 흠족했던 같다. 중수를 마친 후 삼존상에 대해 “본존인 비로자나불상은 외연(巍然)하며, 좌우의 보살상은 단정하고 엄숙하여 신공(神功)이 찬연하며 앞에서 빛이 나고 뒤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찬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진열은 비로전 삼존상의 중수, 관음전 보살상 제작뿐 아니라 원문 D.의 내용과 같이 80여 년 만에 선각(善覺)을 이어 미륵전 불상의 개금, 인근 암자인 안향암과 적조암에 각각 아미타와 관음존상을 조성했으며, 사흘도 원불 아미타삼존상을 조성하였다.

17) 『梵魚寺誌』, 『梵魚寺毘盧三尊重修改金兼金像觀音新造記』 “…嘉善大夫興寶公也及一寺總領之主也亦半干 金許納重修改金毘盧三尊契中之座主亦如百金許納新造觀音一尊判廳之主員也…”

18) 『梵魚寺誌』, 『梵魚寺毘盧三尊重修改金兼金像觀音新造記』 “…康熙六十一年壬寅八月湖月門人存覺書 毘盧三尊重修改金施主契中秩 大玄…緣化秩 證明宗敏 良工進悅 寬性 玉聰 清愚清輝 持殿 懶軒(下略)…”

19)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대좌묵서: “康熙六十一年季夏東萊梵魚寺 毘盧三尊重修奉安于 毘盧殿 觀音菩薩二位新造奉安於 觀音殿 緣化秩 證明比丘宗敏 持殿比丘 仁淑 比丘 坦日 比丘 懶軒 金魚畫員 嘉善大夫 進悅 清雨 清徵 貫性 玉聰 …”

범어사는 1638년에 이어 1722년에 다시 한 번 대대적 중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진열이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수문 내용으로 짐작컨대 비로전 삼존상은 1638년에 조성된 후 1722년까지 도금 등 별다른 수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수리·보수의 내용도 살펴볼겠지만 원래 모습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개금만 한 미륵전 불상과 비로전 삼존상의 중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고 짐작된다. 즉 중수문에서 ‘중수(重修)’는 수리의 범위가 넓고, 상의 외형적 변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흔히 개금수리의 과정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이 흥미롭다.

2. 과학으로 본 중수기법

2006년에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조사할 당시는 1722년 진열에 의해 수리된 상황을 면밀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수리를 위해 실시되었던 엑스레이 촬영, 재질과 안료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통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에 큰 의의를 둔다.

과학 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삼존상의 개금층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맨 위부터 아래층까지 순차적으로 개금층을 확인하여



1638년 : 세 번째 개금층
1722년 : 소조층과 두 번째
개금층
근 래 : 첫 번째 개금층

<도 12>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층 제거모습, 범어사 비로전

이전의 수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먼저 겹면의 가장 밝고 선명하며 두꺼운 첫 번째 개금 층을 벗겨낸 후에는 옷칠 위에 개금 층과 그 아래 넓은 소조층이 있었으며, 소조층 아래에는 또 다른 개금 층이 나타났다. 이런 조사의 결과 비로전 삼존상은 모두 3개의 개금층과 1개의 소조층이 확인되었다. 이 현황을 다시 역으로 분석해 보면, 맨 아래 세 번째 개금층은 1638년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에 소조층과 두 번째의 옷칠 층은 진열이 중수했던 1722년 당시의 것으로 보여 중수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수리의 횡수이다. 마지막 층위는 근래 개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개금층과는 차이가 크다<도 12>. 이런 전체적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진열의 중수기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금층과 부분적으로 두 번째 개금층을 제거해야 진열의 소조 작업층 확인이 가능하며,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 각 존상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본존인 비로자나불좌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소조층과 옷칠 층이 같은 면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도 13>. 흙으로 성형된 부분을 보면, 정면에 배 앞에 흙을 붙여 만든 두꺼운 옷자락이 보인다. 좌측면은 팔꿈치 주위에 흙으로 보강했고, 우측면은 어깨, 우측 팔꿈치로부터 손목 가까이 하박(下膊) 전체에 흙을 퍼 발랐다. 또 목덜미부터 등판과 엉덩이, 대퇴부 쪽 까지 전체적으로 두꺼운 소조층이 확인되며, 앞쪽



<도 13>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본존, 수리 전 모습, 범어사 비로전



<도 14> 목조보현보살좌상, 우협시
수리전 모습, 범어사 비로전

<도 15> 목조문수보살좌상, 좌협시
수리전 모습, 범어사 비로전

결가부좌의 다리만 완전한 목조각 부분이 나타난다. 상 밑판의 좌대는 엉덩이 쪽을 이층으로 나무 조각을 받쳐 상의 전후 높이를 맞추어 놓았는데 한쪽이 들떠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보살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측 보현보살상<도 14>은 오른쪽 어깨의 대의자락과 팔꿈치의 일부, 왼손은 팔꿈치와 손목, 손목에서 흘러내리는 옷자락이 모두 흠으로 성형되어 있으며, 왼쪽 무릎, 이와 이어지는 허벅지, 그리고 뒷면은 목덜미로부터 맨 아래 좌대까지 흠을 두껍게 덧바른 상태이다. 이 상도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앞이 들려 있는 상태이며, 다른 2구의 상에 비해 뒷면 표현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좌측의 문수보살상<도 15>은 보현보살상에 비해 오른쪽 어깨의 대의자락이 잘 남아 있으며, 본존인 비로자나불좌상과 보현보살상과 같이 배 앞의 넓적한 옷자락은 흠으로 모양을 만들었다. 왼팔은 하박의 팔등 일부, 왼쪽 허벅지와 왼쪽 손목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흠으로 성형되어 있다. 등은 목덜미 쪽의 일부 옷깃만 두고 전체적으로 흠을 두껍게 발라 놓은 상태로 보현보살상 보다 수리 범위가 넓다.

각 상의 소조층 부분을 종합해 보면,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배 앞쪽과 목덜미로부터 등, 엉덩이의 뒷면은 모두 흠을 두껍게 붙여 성형한 점이 공통적으로 보이며, 팔꿈치와 측면 옷자락, 팔 등, 허벅지 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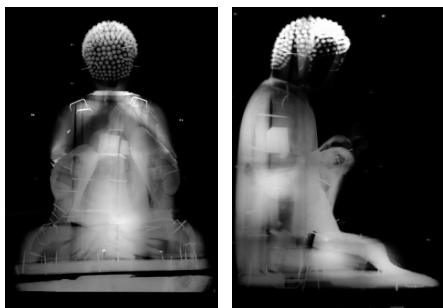
흠으로 보강했다. 전체적으로 소조층이 있는 부분은 상의 부피나 입체감 즉 상의 외형적 무게감과 관련된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열의 조각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얼굴과 다리 앞의 옷주름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왜 배 앞과 뒷면의 두꺼

운 소조층이 형성되어 있는지 진열의 중수 의도가 무엇인지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조사의 내용 중 삼존상의 제작기법과 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진의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본존인 비로자나불좌상의 제작기법을 보면 가슴 가운데에 양측으로 갈라진 부분에 2개의 ㄷ자형 못으로 연결한 것이 보인다. 그리고 양 어깨와 팔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이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절개에 의한 것인지 목재의 균열에 의한 이격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측면을 보면 몸통과 팔을 내부에서 못으로 보강한 것처럼 보이며, 앞 다리와 몸통을 접합하기 위해 허벅지 양측에 ㄷ자형 못으로 연결한 것이 확인된다<도 16>. 원래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접목하였는지는 본존상의 결구 내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삼존상은 같은 제작기법을 가지므로 양측 보살상의 내부 구조도 확인해야 공통적인 제작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우측의 보현보살상을 보면 본존상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가운데 두꺼운 소조층으로 정확한 가운데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양 어깨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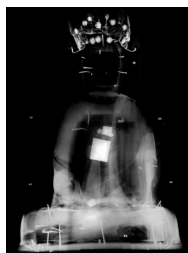
① 정면

② 우측면

<도 16>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본존
엑스레이 사진, 범어사 비로전



<도 17> 목조보현보살상, 우협시
엑스레이 사진, 범어사 비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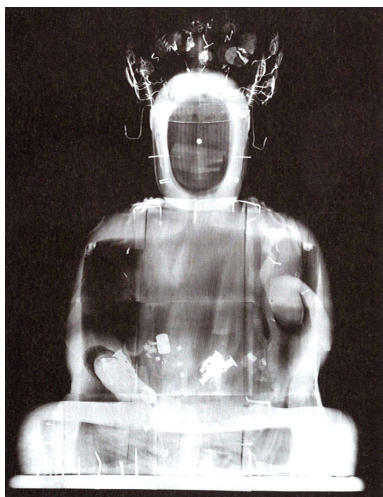
<도 18> 목조문수보살상, 좌협시
엑스레이 사진, 범어사 비로전

터 다리 부분까지 절개선이 있다<도 17>. 문수보살상도 역시 오른쪽에 어깨와 몸통을 연결한 ㄷ자형 못 1개와 다리 아래까지 절개되어 있는 흔적이 확인 된다 <도 18>. 문수보살상은 <도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뒷면이 엑스선의 투과가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흙이 두껍게 발려 있어 다른 결구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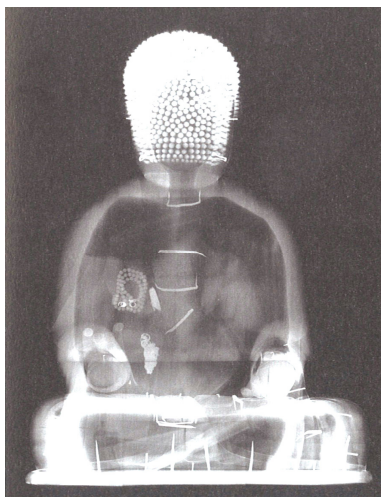
삼존상의 내부 엑스레이 사진 내용을 종합하면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공통적으로 양측 어깨에서 다리 까지 길게 절개선이 있으며, 다리 앞과 몸통이 서로 결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존상에 보이는 가운데의 결구는 목재의 갈라짐으로 생긴 이격을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로전 목조삼존상은 가운데 몸통, 양팔, 다리로 모두 4개의 부분으로 절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목조불상은 크게 두 가지의 제작법이 확인되는데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과 같이 가운데 몸통, 양 팔, 그리고 다리 앞 모두 4개의 부분으로 절개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운데 부분을 절개한 양팔 2개의 부분과 다리 1개로 모두 3개의 부분으로 절개하는 것이다.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과 같은 기법으로 제작된 사례로는 2m에 가까운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이 있지



<도 19> 목조문수보살상(좌협시)
엑스레이 사진, 1615년, 진주 청곡사
(『목조불』, 2013년, 문화재청,
336쪽 사진인용)



<도 20>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엑스레이 사진, 1640년, 거창 심우사
(『목조불』, 2013년, 문화재청,
385쪽 사진인용)

만 사례가 많지는 않다. 진주 청곡사 목조삼존상의 내부구조를 보면 양 어깨의 절개선이 다리 아래까지 이어지고 다리 앞을 따로 하여 모두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한 후 ㄷ자형으로 못으로 결구했음을 볼 수 있다. 내부구조가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과 같으며 양 어깨선으로부터 아래 다리까지 절개흔이 보인다<도 19>. 비로전 삼존상은 청곡사 삼존상에 비해 어깨 끝선에서 절개가 들어가 전체적으로 결구 구조가 안정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비로전 삼존상이나 청곡사 삼존상은 3자가 넘는 큰 규모의 불상으로 2개로 절개할 수 있는 목재의 수급이 어려웠을 것이며, 가슴 앞으로 올린 손 모양도 결구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상황으로 생각된다. 목조상 중 가운데 절개선이 있는 경우는 100cm 내외 2자를 전후한 불상의 경우 상반신을 2개로 절개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도 20>.²⁰⁾



<도 21> 목조문수보살상의 좌우측면 흙으로
보강된 모습, 범어사 비로전

한편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진열이 중수를 위해 흙을 붙인 방법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뒷면은 두껍게 흙을 바른 소조층 아래 목재면이 전체적으로 얇아 보이는데 이는 등판의 일부를 깎아 수정한 결과로 추정된다. <도 21>과 같이 상의 표면 일부를 다듬어 낸 후 흙으로 상 표면의 높이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수리의 선택이 상이 훼손되어 이루어진 것인지는 피사체의 밀도에 따라 사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정확한 상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범어사 비로전 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불신 전체에 있는 소조층 때문에 목조상인지 소조상인지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으나 분명 삼존상을 처음 조성할 당시는 목조상으로 제작된 것이다. 진열이 불상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허벅지 부분과 무릎 측면 등에 흙을 이용해 상의 부피감을 늘이고, 중수 과정에서 깎아 낸 부분을 돋우는 데 흙을 사용한 것이다<도 21>. 목조불상에 흙을 이용한 방식은 고려 반룡사 목조삼존상(16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세기 전반부터 이용되었으며²¹⁾ 흙은 자

20) 『목조불_2013년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문화재청, 2013, 248쪽, 385쪽 참조

21) 임남수·김준영·배영진·윤선영·최강국,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불

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상의 성형을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보통 흙은 인근에서 수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재료의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다.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에 사용된 흙을 분석한 결과도 작은 입자들이 포함된 정제된 것을 사용했는데 분석된 내용물은 모래, 실트, 점토입자들과 일부 석영과 정장석이 섞여 포함되어 있었으며, 보수에 사용된 흙은 모두 범어사 일대에서 채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²²⁾ 더불어 불상 조성에 사용된 나무는 은행나무이며, 비로자나불상의 등판, 보현보살의 주심, 문수보살상의 뒤편은 오리나무로 식별되었다.²³⁾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조선후기 불상의 몸통은 은행나무나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좌대 밑판은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과 같이 2종의 수종이 몸통에 사용하는 되는 경우는 드물다. 중수과정에서 목재의 일부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시료를 채취한 부분에 복장공의 설치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불상은 손을 다른 수종으로 따로 제작해 끼우는 경우도 있어²⁴⁾ 복장공을 덮는 마감재도 다른 수종의 목재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모습이다. 비로전 삼존상의 얼굴은 턱이 둥글며, 볼이 부푼 듯한 양감에 동글동글한 이목구비의 표현, 아이 같은 인상 등 진열이 제작한 불상의 얼굴과 인상이 꼭 닮았다<도 2, 3>. 그렇다면 불상에서 중요한 얼굴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조선후기 목조불상은 얼굴을 마스크와 같이 앞만을 조각하여 결구하는 방법을 이용

좌상」『民族文化論叢』 제46집, 2011, 5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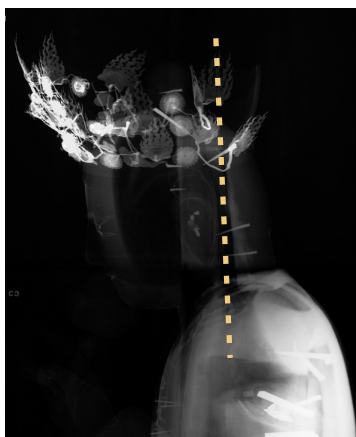
22) 『범어사 비로자나삼존불 과학적 분석 결과』, 2012년 자문회의 자료, 25~29쪽 참고.

23) 위의 회의자료 30쪽.

24) 박원규외, 「전라도지역 조선후기 목조불상의 수종」『한국가구학회지』 제21호-1, 2010, 7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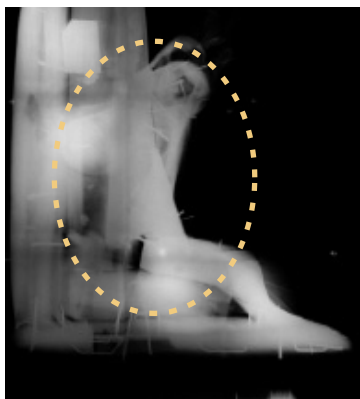
<도 22> 조선 후기 목조불상의
절개(『목조불』, 2013년, 문화재청,
335쪽 사진인용)



<도 23> 목조보현보살좌상의
얼굴절개 모습, 범어사 비로전

한다. 상반신을 2개 혹은 3개로 절개한다 하더라도 목덜미와 뒷머리는 함께 조각되며, 앞의 얼굴은 따로 만들어 붙이고 양 귀도 따로 제작하여 못으로 결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도 22>.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도 머리는 뒤통수 부분, 즉 귀를 기준으로 귀 뒤편으로 절개한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얼굴의 전면은 원래 것을 제거하고 새로 진열이 만들어 결구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도 23>.

진열 불상의 전형적 특징은 얼굴 외에 하반신 옷주름 처리에서도 확인된다. 하반신 다리를 덮은 옷자락의 주름은 두 다리 사이 가운데 주름의 끝단이 S자형을 이루며, 바닥에 닿아 있는 끝단이 파상형을 이루고 있다<도 8>. 하반신은 상반신과는 전혀 다른 표현기법으로 상반신의 옷주름이 크고 단순하면서도 두꺼운 특징을 보이는 반면 하반신 옷주름은 S자형 곡선과 둥근 끝단 처리가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18세기 진열의 불상 특징을 보인다. 얼굴 앞면이나 결가부좌한 다리는 모두 몸통



<도 24>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하반신 엑스레이 촬영 모습, 조선
1638년, 범어사 비로전



<도 25> 목조석가여래좌상의 하반신
엑스레이 촬영 모습, 조선 1643년 진주
응석사, (『목조불』, 2013년, 문화재청,
249쪽 사진인용)

과 따로 제작하여 결구하는 부분이므로 다리 부분도 원래의 것을 새로 제작 혹은 수리해 다시 결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이유에서 앞쪽 다리 부분이 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로전 삼존상의 하반신 내부 사진에서도 이런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 몸통과 다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 완전하게 짜 맞춘 구조가 아니다<도 24>.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목조상은 몸통과 앞 다리의 결구가 거의 정확히 맞게 짜여 있지만 <도 25> 비로전 불상의 앞 다리와 몸체는 이격이 크게 나 있으며,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방법으로 배 앞에 흠으로 모양을 낸 두꺼운 옷자락이 덮고 있음을 볼 수 있다<도 24>. 이런 이유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표현 기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상반신은 17세기 특징, 하반신은 18세기 진열의 불상 특징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진열이 행한 중수의 내용은 중수문의 기록처럼 옛 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보충했으며, 웅졸한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에 삼존상을 칭송하는

당시 사람들의 안목도 반영하고 있어 재미있다. 조선후기 활동한 조각승들과 다른 수리법의 선택은 진열이 가지고 있는 조각적 역량이며,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이라 하겠다.

IV. 결 론

지금까지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조각적, 도상적 특징과 중수문과 과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봄으로써 삼존상이 가지는 조각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도상 구성을 가진다. 17세기 전반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 노사나불의 삼불을 하나로 보는 불교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석가여래 대신 비로자나불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범어사 비로전 삼존상에서 처음 확인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런 도상 구성의 저변에는 범어사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후기 까지 내려오는 오랜 화엄사찰의 명맥과 왜구를 물리치고자 하는 호국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중수는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음을 중수문과 중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두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얼굴과 다리의 옛 것은 삭제하고, 새 것을 보충했으며, 웅색해 보이는 부분은 원형을 흠뜨리지 않고 보수하여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중수의 과정으로 비로자나불좌상은 크고 높은 외연한 모습이 되었으며, 2구의 보살상은 단정하고 엄숙

해졌다.

이상의 내용은 지금의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의 모습이 17세기와 18세기 불상의 특징이 조화롭게 잘 표현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진열의 조각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의 불상 중수법은 조선후기 불상 수리의 매우 특별한 사례로 여겨질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遺事』 『梵魚寺誌』

2. 저서 및 논문

김봉렬, 『朝鮮時代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박은경, 『조선16세기 불화의 시주품목과 소임』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2008.

박은경 · 정은우 · 한정호 · 전지연, 『범어사의 불교미술』 선인, 2011.

박원규외, 『전라도지역 조선후기 목조불상의 수종』 『한국가구학회지』 제21호-1, 2010.

宋殷碩, 『17世紀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이희정,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의 重修에 관하여』 『港都釜山』 제26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0.

_____, 『咸陽 安國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東亞文化』 2 · 3호, 2007.

_____,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조각승과 불상』,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출판사, 2013.

- 임남수 · 김준영 · 배영진 · 윤선영 · 최강국, 「고령 반룡사(盤龍寺) 비로자나삼존 불좌상」『民族文化論叢』 제46집, 2011.
- 정은우, 「여수 홍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여수 홍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정밀안전진단』 문화재청 · 여수시, 2012.
- _____, 「여수 홍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역사와 담론』 제65호, 호서학회, 2013.
- 최선일,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美術史學研究』 244, 2004.
- _____,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 보고서 등

- 『梵魚寺聖寶博物館 名品圖錄』梵魚寺聖寶博物館, 2002.
-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I · II · III』,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 2005.
- 『한국의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I』,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 2007.
-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 · 경상북도II』,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 2008.
-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 2009.
-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II』,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 2010.
- 『求禮 華嚴寺實測調査報告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 『求禮郡의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4.
- 『범어사 대웅전 수리공사』, 동래구, 2003.
- 『谷城郡의 佛教遺蹟』, 국립광주박물관, 2003.
- 『목조불 2013년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문화재청, 2013.
- 「범어사 비로자나삼존불 과학적 분석 결과」, 자문회의 자료, 영산, 2012,

| Abstract |

The Review on the Restore of Buddhist Triad
in Birojeon Hall, Beomeo-sa

Lee, Hee-Jung

Generally, 'artist's artistry' refers to the value to create beauty through materials, style and craftsmanship and then sublimate it into art. Among the many sculpture monks in the Joseon Dynasty, Jin-Yeol, who restored a statue of Buddha at Gwaneumjeon and Birojeon Hall, Beomeo-sa, is one of the kinds. Unlike ordinary sculptures, religious sculpture is a matter of how sacred statues can be revealed to people. In that sense, the Triad Buddha in Birojeon Hall, Beomeo-sa has many meanings.

In Birojeon Hall, Beomeo-sa, Manjusri on the left side of Vairocana and Samantabhadra on the right side are enshrined. It appears that Vairocana has replaced Sakyamuni. That kind of triangle structure of the statues is still unknown. The reason why Sakyamuni has been replaced by Virocana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Sakamuni and Nosana are considered as one kind. In addition, the Triad Buddha in Birojeon Hall, is closely related to the religious belief of Beomeo-sa. From the time of Ei-Sang, the belief to defeat Japan by reading The Avatamska Sutra and the power of buddhism continued to late Joseon and tried to express religious faith through constructing the Triad Buddha in Birojeon Hall. The Triad Buddha in Birojeon Hall, created in 1638, had not been repaired for 80 years. The condition of the statue was serious and the restore was led by Jin Yeol. He led all the rebuilt in Beomeo-sa by reconstructing the statue of Gwaneumjeon and renovating the statue of Mireukjeon as well as repairing

the Triad Buddha in Birogeon Hall. His way of repair was different from the ones from other sculpture monks in late Joseon. The result fully revealed the aesthetic sense and sculptural capacity of Jin Yeol by recreating the Triad Buddha with the combination of his own style and the general Buddha statue style in 17th Century. As a result, the Triad Buddha in Birojeon was reborn with a high, graceful, and solemn appearance as a sacred statue, and this w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 artistry of the monk sculptor, Jin-Yeol.

Key words: Beomeo-sa Birojeon Hall, Vairocana, religious faith, Jin-Yeol, Restore